기독교 보수단체, 佛敎 명상교육 '반대'

ACLJ, "명백히 기독교와 상반되는 행위"
소송 · 온라인 청원 등 보이콧 움직임도

이보형 객원기자

미국의 기독교 보수단체가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마음챙김 명상 교육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을 시작해 불교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 s Roar)는 최근 "한 기독교 단체가 공립학교에서 진행되는 명상 교육 프로그램이 '명백히 기독교와 상반되는 행위' 이자 '불교도의 명상' 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청원 캠페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명상 교육 반대 운동에 나선 단체는 보수 종교단체인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이다.

ACLJ는 일부 학교에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오디오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이 수행법은 불교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다"면서 문제 삼았다.

ACLJ는 불교를 질병에 빗대어 비판했던 TV전도사 출신의 팻 로벗슨(Pat Robertoson)이 설립한 단체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측 한 사람인 제이 세큘로우(Jay Sekulow)가 자문대표로 있다.

ACLJ의 주요 활동으로는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CLJ는 "우리는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을 비롯해, 학부모 미국정보공개법(FOIA)신청 및 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법적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며 "공립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ACLJ 대표단은 학교에서 시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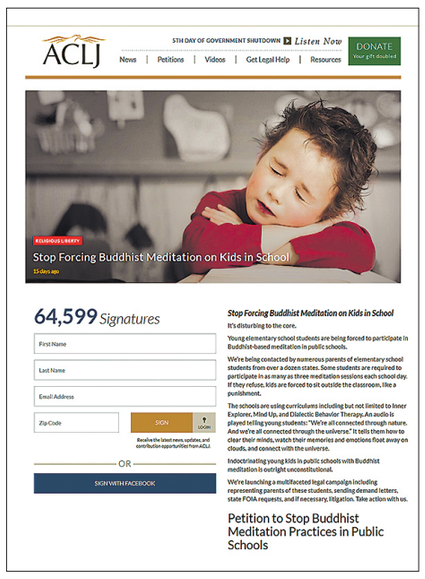
기독교식 이외 일절 배격해
"학생에게 명상 강요" 주장

실용명상 지지자, 사색 위한
범종교적 방법론이라 반박

는 주의력 프로그램에 반대하기 위해 콜로라도에서 열린 학교 이사회에 참석했다.

ACLJ는 "명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그들 내면의 선함을 찾거나 자연과 합일되기를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제이 세큘로우는 그의 프로그램 '세큘로우의 라디오쇼' 에 ACLJ 수석변호사 에비 서덜랜드를 초청해 공



미국 기독교 보수단체인 ACLJ가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불교식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CLJ 홈페이지 반대청원서 화면.

교육에서 시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인터뷰에서 에비 서덜랜드는 명상 프로그램이 "매우 공격적인 불교식 교육"이라며 " '내면을 들여다봐라' '내 안의 선함을 찾아라' 는 내용은 명백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세큘로우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관계자는 "이런 교육방식은 교육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독성이 매우 강한 이데올로기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나에게는 두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내 아이들이 창조와 선, 평화만을 생각하며 빈둥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의 두 천사가 탐험가에 대해 배워야 한다면 그 대신 예수와 트럼프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큘로우는 청취자들을 상대로 불교 명상 교육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교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며 "우리는 학교 이사회에 연락해서 필요시 변호사를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CLJ는 명상 프로그램이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세큘로우는 또한 명상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마인드 업(MindUP)' 이 불교신자인 골디 혼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이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용적인 명상수행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상은 불교적 관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명상은 다양한 이름들로 전세계의 종교적 전통에 사용되는 사색적인 행위"이며 "오늘날 학교 대부분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전문 임상의가 개발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화' 속에서 꽃핀 비구니들 '자비행'

리안종 사찰, 성당에 성탄절 나눔


중국 리안종 불교 사찰 소속 비구니 스님들이 인근 성당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식료품 및 현금 등을 전달했다.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의 일부 지방 당국이 크리스마스를 금지시키려는 가운데서도 비구니 스님들이 솔선수범해 크리스마스 기념 자비행을 펼쳐 화제다.

중국 북부 지역의 리안종(蓮宗, 정토종의 다른 이름) 불교 사찰 소속 비구니 스님들은 양배추, 쌀, 밀가루, 식용류 등 식료품과 현금 290달러를 시카이 가톨릭 성당(Xikai Church)에 전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구랍 21일 보도했다.

해당 사찰 측은 "그 성당은 생활 여건도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와 자선 활동에 헌신한다"며 "우리는 모두 종교인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행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비구니들은 해당 성당과 종교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종종 공부를 함께하기도 하고 사물을 공유하는 한편,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이들을 지원했다.

리안종 사찰은 1930년대에 설립돼 해당 성당보다 많은 신도를 보유한다. 하지만 사찰 역시 최근 재건 작업 때문에 자금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크리스마스는 중국에서 공휴일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당국의 '중국화' 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이 심화된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쌍둥이 남매가 결혼을?…'전생 緣' 주장

윤회 믿는 부모 뜻 따라, 법적 구속력 無


쌍둥이 남매 기타와 키위(가명)는 방콕 외곽의 사뭇 프라 칸 (Samut Prakan)에서 불교식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태국 6세 쌍둥이 남매가 불자 부모에 의해 결혼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랍 25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기타와 키위(Guitar · Kiwi, 가명) 남매는 전날 방콕 외곽의 사뭇 프라 칸 (Samut Prakan)에서 불교식 결혼식을 올렸다.

데일리메일은 "어린 소년 기타와 그 누나인 키위는 2012년 9월 태어났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결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이 전생에서 업을 해결하지 못해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쌍둥이의 아버지인 아문산 선톤 마리랏(Amornsan Sunthorn Malirat · 31)과 어머니 파차라폰(Phacharaporn · 30)은 결혼식을 위해 수백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국 전통에 따라 남자인 기타는 현금과 금을 준비해야만 했다.

부모가 남매의 결혼을 서두른 것은 미룰수록 이들이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생에 사랑하는 관계였던 이들의 '업' 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윤회에 따라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아문산은 "두 아이가 전생에 연인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불교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면서 "우리는 그들 전생의 업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결혼식을 서둘렀다. 그들은 앞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며 병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가족, 친지 등 수십 명의 하객들과 거리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진다.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기 위해 9개의 문을 통과하는 의식을 치렀다.

하지만 쌍둥이 남매의 결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부모의 일방적 신앙으로 아이들이 '희생' 한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다만 이들의 결혼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어머니인 파차라폰은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두 아이는 남은 인생 동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각자 남편과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의식은 그들 삶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SNS '식스팩 스님' 화제

구릿빛 피부의 식스팩 스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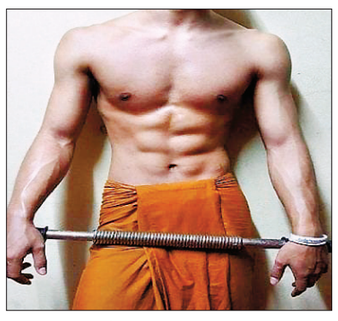
최근 태국국립불교청(National Office of Buddhism of Thailand, ONaB)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식스팩 스님' 사진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를 착수했다.

사진 속 스님은 태국 전통 승려복인 오렌지색 하의를 입고 아령을 들고 있다.

사진은 수라섹 콰티작(Surasek Kwatijak)이라는 사람의 계정에 게재돼 있으며, 태국불교청의 조사 대상이 됐다.

수라섹은 조사를 받으며 "트위터에 무작위로 공유된 사진이 발견됐으나 사진의 최초 유포자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국 중앙 정부부처중 하나인 태국불교청은 불교보호단체와 각 지자체 기관들에 '식스팩 스님' 의 사진을 조사해 스님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라섹 콰티작의 SNS계정에 게재된 사진. 태국불교청은 스님의 신원 파악 중이다.

만약 사진의 주인공이 실제 승려로 밝혀질 경우 그는 태국 승려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태국국립불교청은 " '식스팩 스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실제 범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불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며 디지털경제부에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